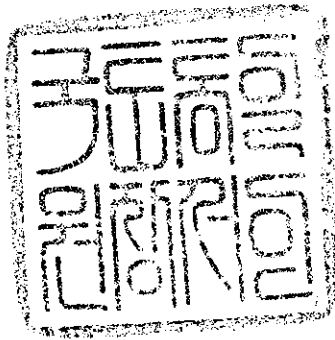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하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년 11월 일



연구기관 : 부산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책임자 : 부 운 봉

目 次

| | |
|------------------------------------|----|
| 第1編 理論的 考察 | 3 |
| I. 序論：（統合理論의 定立과 分析角度） | 3 |
| II. 經過：（事態發展의 特徵的 性格） | 6 |
| ① 基本理念과 基本戰略 | 6 |
| ② 北韓의 戰略과 그 分析 | 9 |
| III. 結論：（經過에 대한 評價와 戰略上의 考慮） | 15 |
| 第2編 討論을 통한 問題点의 整理 | 21 |
| <要 約> | 51 |



第 1 編 理論的 考察

I. 序論 (統合理論의 定立과 分析角度)

一般的으로 通用되는 統一概念은 國土의 統一 즉 南北韓의 單一政治本制의 實現이라는 뜻으로 把握된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우리가 當面의 課題로서 南北對話를 통한 統一의 길을 設定할 경우, 적어도 이와같은 概念의 統一이란 民族의 理念은 될 수 있을지언정 現實的 接近課題로서는 거의 失望的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現時點에 있어서 이와같은 統一概念에 執着하는 限. 그리고 그것을 性急히 期待하는 限. 우리 앞에는. 勇氣와 希望보다도 挫折과 幻滅이 주는 衝擊이 더욱 클것이다.

따라서 現實的 條件에서 우리가 期待하는 統一은 「유토피아」가 아닌, 다시 말하면 A·D·Lindsay가 말한 바처럼 소위 「作用하는 理念」(Operative Ideals)으로서, 現實的으로 可能하며, 또 그것이 窮極的 理念에 接近할 수 있는 過程으로서의 새로운 概念을 定立해야 할 必要가 있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民族統一 (national Unification)과 區別되는, 南北韓의 現體制를 當分間 前提로 한 民族의 融合 (National Association)의 概念을 定立해야 할 必要가 있다.

民族統一이 南北韓의 政治的 單一體制 (Political Integration)의 實現을 뜻한다면, 民族의 融合은 非政治的 脫「이데올로기」의인

分野에 있어서 南北間의 接觸 交流 協同體制의 實現이란 段階的 概念을 말한다 할 것이다.

이와같은 段階的 過渡的 概念으로서의 融合過程이 進展되는 경우 理念的 統合의 窮極的 目標에 到達할 수 있는 展望이 서게 될 것이다.

오늘날 世界的 次元에서의 理念的 統合 (Ideological Integration)을 展望하는데 있어서는, 樂觀的 見解로서의 소위 收斂論 (Convergence Theory)과 悲觀的 見解로서의 離散論 (Divergence Theory)이 擡頭되고 있음은 우리의 注目を 끌고 있다. 現時點에 있어서의 統一의 概念을 再確認하는데 있어서나, 그동안의 南北對話를 統한 過程에서 經驗한 失望과 希望的 論爭을 再檢討하는데 있어서 이와같은 理論에 立脚한 새로운 認識的 整理가 必要할 것이다.

收斂論이 가지는 希望的 樂觀的 見解는 共產社會에서 技術文明이 高度로 發達하여 大衆消費社會로 變轉하면서 開放的 自由經濟體制를 受容하게 될때,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資本主義社會에서 社會保障이 滿足할 程度로 實現되고, 分配의 均衡이 社會的 同質化를 期하게 될때, 두 理念의 對立은 漸次 解消되어 새로운 次元의 統合 (Convergence)이 實現될 것으로 본다.

한편 離散論은 技術革命의 高度的 發展이 分配의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할 수는 없을 것이며, 「테크노크라트」가 資本家의 支配로 부터 벗어날 수 없고, 共產社會의 計劃經濟는 資本主義社會의

經濟計劃과 끝까지 融合될 수 없으며, 世界觀, 歷史觀, 人間觀에 있어서의 合意點을 發見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人間生存을 위해서, 또는 對立的 理念의 自体存続을 위하여 소위 平和的 共存의 限界까지는 到達될 수 있다고 믿을 뿐이다. 離散論에 있어서는 融合이란 概念이 成立될 수 없고, 東西間의 接觸交流은 相互打算的 戰略의 斷片的 表現이며, 持續적이고 發展的 原理의 一端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하튼 收斂論은 적어도 世界的 統合體制 乃至 調和의 秩序를 樂觀하는 念願의 表現이며, 離散論은 적어도 우리가 現實적으로 洞察할 수 있는 範圍에서 이를 悲觀하는 表現이라 할 것이다. S. M. Lipset가 지적하듯 社會變動에 따라 理念의 問題가 衰殘해진다는 것은 窮極적으로 「이데올로기」의 終末을 告한다는 것과는 別個의 問題일지 모른다. 思考方式이나 社會決定要因들이 變化하면 理念의 差異를 解消시켜 줄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希望의 期待이며, 또한 經濟要因이라는 環境的要因이 理念의 問題를 풀 수 있는 顯著한 要因이 될 수 있을것인가 하는 것은 疑問이라 할 것이다. 先進된 民主社會에서 조차 바람직한 社會保障策의 確立이 現實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問題이며, 階級分化和 社會的 葛藤의 解消가 現實적으로 얼마나 至難한 것인가를 実感한다.

이렇게 볼때 「이데올로기」의 問題와 關聯하여 南北對話의 앞날을 점치고 그 好轉의 方向을 摸索한다는 것은 極히 至難한 問題이다. 그러나 어떠한 理論的 側面에서 說明하든, 오늘날 우리의

周邊強大国들의 急進的 關係改善이라는 外制的 힘을 排除할 수 없는 우리의 狀況에서 民族의 動脈을 다시 잇고자 하는 努力은 分明히 眞實하고, 崇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努力은 하나의 民族的 至上的 使命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疑問의 余地를 附帶條件으로 甘受하고, 平和的 共存과 限定的 融合이라는 前提條件에서 南北對話를 展望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極端的으로 離散論을 因守하는 限, 南北對話에 精力消費를 해야 할 理由가 없고, 또한 反對로 收斂論에만 安住하는 限 南北對話의 離関을 克服하는데 있어서 警戒해야 할 思慮없는 速斷이 있을 수 있고, 豫期치 않는 挑戰에 糖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離散論의 余地를 恒常寬悟하면서 收斂論쪽으로 기울이는 折衷的立場이 重要な 前提가 될 것이다. 만약 이와같은 分析的 視角이 前提되지 않는 限, 그동안의 南北對話의 過程을 正確히 把握分析치 못할 것이며, 더욱 重要的 것은 앞으로 이 對話를 効率的으로 誘導해야 할 우리의 戰略이 適切히 樹立되지 못할 것이다.

II. 經過 (事態發展의 特徵的 性格)

① 基本理念과 基本戰略

우리는 먼저 그동안의 南北對話를 통한 事態發展의 特徵的 樣相과 그 性格을 分析 整理해 볼 必要가 있다. 1970年 8月

15 日의 朴大統領의 8.15 宣言, 1971 年 8 月 12 日의 崔斗善 韓赤總裁의 南北赤十字會談의 提議, 1972 年 5 月 2 日의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의 平壤訪問과 7.4 共同聲明, 1973 年 6 月 23 日의 朴大統領의 平和統一外交宣言 등으로 特徵化되는 一聯의 우리側 「이니셔티브」를 發揮케 한 重大한 契機는 한 마더로 急變하는 國際情勢의 變化에 對한 能動的 對處라고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國際情勢의 特徵的 變化는 戰後의 冷戰體制를 脫皮하고, 相互의 平和的 共存을 爲해 現狀維持 (Status quo) 를 基調로 한 새로운 勢力均衡의 模索이라 要約할 수 있다. 즉 이러한 國際情勢의 動向은 現狀維持라고 하는데 重要한 뜻이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國際情勢에 對한 우리의 能動的 對處란 무엇인가.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는 國際潮流에 消極的으로 被動的으로 對處함은 南北分斷의 現實을 적어도 當分間 이를 固定化한다는 現實條件의 甘受와 承認이고, 南北對話를 통한 自主的 統一努力이란 窮極的으로는 現狀打破가 前提가 되는 하나의 志向性이다. 形式論理的으로 보면 現狀打破가 前提가 되는 自主的 民族統一은 現狀維持가 前提되는 國際潮流에 逆行하는 二律背反的인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分명한 하나의 事實은 民族統一은 우리의 窮極的이며 當爲的 目的이며 民族理念인데 反해서, 國際情勢에 對處한다는 것은 이러한 目的達成을 爲한 手段과 方便이지 그 自体가 目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現狀維持란 平和를 爲한 緊張緩和의 手段이지 現狀維持 그 自体가 目的이 될 수 없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우리는 國際的 趨勢에 있어서 平和라고 하는 追求와 우리
의 志向性에 있어서 自主的 民族統一이라는 目的이 兩立할 수 있
는 條件은 平和的 方法 또는 戰略이란 概念을 確認하는데 있다.
따라서 國際情勢에 대한 能動的 對処란 平和的 方法에 의한 自主
的 民族統一의 努力이라 定義할 수 있다. 우리가 國際情勢의 變
轉趨勢에 대한 沒理解 또는 非自主的, 沒我的 判斷과 被動的 甘受
로 해서 슬한 民族的 不運을 겪었으며, 오늘날의 우리의 現實
또한 그 範疇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때 우리는
이와같은 不幸한 歷史의 前轍을 다시 밟지 않겠다는 意志가 있어
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民族統一을 위한 自主的 平和的 努
力이라고 定義할 수 있는 國際情勢에 대한 能動的 對処야 말로
現時點에 있어서 嚴然한 民族的 課業으로 우리에게 그 使命을 要
請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民族的 基本理念을 實現키 위한 平和的 自主的
戰略은 무엇인가. 그것은 序論에서 論及한 것처럼 窮極的 統合을
위한 段階的 概念으로서의 機能的 融合 (Functional Association)
을 摸索하는 길이며, 이러한 努力의 具體的 成果로서 얻은 特定
分野의 成功的 經驗은 그 波及效果 (Spill-over Effect)로 해
서 보다 高次的 問題解決의 基本「모델」을 提供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南北對話를 통해 보여준 우리의 「이니셔티브」과 그리고
특히 朴大統領의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은 바로 이와같은 情勢判斷
아래 基本理念으로서의 平和的 民族統一의 努力을 積極化하는 一環

策으로서, 보다 現實的이며 實質的인 与件造成이라고 하는 機能的 融合을 摸索하는 統一戰略의 表明이라 할 것이다.

② 北韓의 戰略과 그 分析

그동안의 南北對話를 통해 나타난 北韓의 統一戰略은 한마디로 政治的 軍事的 問題의 先決處理를 執拗하게 固執하는데서 그들의 戰略上的 特徵的 性格을 把握할 수 있다.

軍事的 側面에서 駐韓美軍의 撤収와 南北韓의 減軍措置를 提起하였고, 政治的 側面에서는 軍事的 側面과 關聯하여 平和協定締結, 法律的 障除去, 大民族會議構成, 南北聯邦制등의 問題提起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그들의 問題提起는 어느것이나 서로 表裏一体的 相互關聯性과 首尾一貫한 原則的 志向性을 한결 같이 露呈하고 있는 것으로 政治的 軍事的 上位問題에 대한 相互의 原則的 合意가 없는 限 文化的 社会的 經濟的 其他的 下位問題의 解決進歩은 期할 수 없다는 下向的 形式論理를 驅使하며, 現實的 實質的 實現可能한 諸与件의 造成을 위한 豫備作業上的 必要한 諸條件을 排除하고, 窮極的으로 到達할 理念的 目的만을 強調하여, 그러한 形式論理의 正當性을 뒷받침하려는 至極히 獨善的 性向을 漸次 露呈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北韓의 固執은 우리側의 漸進的 上向的 接近方法과 對峙됨으로 해서 오늘날 南北對話는 事實上 膠着狀態에 빠졌다 해도 過言은 아니다. 그들의 이와같은 下向的 接近方法은 全体主義的 歷史觀과 그들 特有의 戰略의 一端을 보여 주는 것이며, 우리의 上向的 接近方法은 自由民主主義的 歷史觀과 現實的 分析角度에서

問題를 解決하려는 機能的 戰略의 一端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동안 南北對話를 통해 南北間의 이와같은 戰略上의 特徵的 差異가 가장 具體的으로 가장 集約的으로 나타난 것이 1973年3月 14日부터 平壤에서 開催된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에서 였다. 따라서 南北對話를 통한 그동안의 事態發展의 特徵的 樣相과 그 性格을 究明하는데 있어서는 이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에서 提示된 雙方의 見解가 가장 重要한 分析對象이 될 것이다.

이 第2次會議에서 우리側은 南北關係의 改善을 段階的으로 이룩한다는 基本方針 아래 于先 爭點이 적은 經濟, 社會, 文化分野의 交流를 통해 相互信賴와, 和解의 발판을 넓혀나가는 것이 民族統一의 實質的인 捷徑이 된다는 것을 強調하고, 그 實踐을 위하여 南北調節委員會안에 經濟分科委員會와 社會文化分科委員會를 設置토록 提議하였다.

이에 對해 北韓側은 南北間의 軍縮, 美軍의 撤収 및 平和協定締結 등 軍事的 政治的 問題의 優先解決이 統一의 捷徑이라 主張하면서 政治, 外交, 軍事分科委員會도 함께 發足시켜야 한다는 소위 「5個分科委員會 同時設置案」을 提起하였던 것이다. 또 그들은 이와 關聯하여 ①南北間에 武力增強과 軍備競爭을 中止할것. ②南北의 兵力을 各各 10萬 또는 그 以下로 減縮할것. ③駐韓美軍을 撤収시킬것. ④外國으로 부터 武器導入을 中止할것. ⑤以上의 問題를 保障하기 위해 南北間에 平和協定을 締結할것을 內容으로 하는 소위 「軍事問題 5個項」이 先決되지 않는 限, 南北調節委員

會事業을 進歩시킬 수 없다는 頑強한 態度를 보였던 것이다. 北韓側은 이러한 그들의 主張을 1973年 6月 12日부터 서울에서 開催된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會議에서도 거듭 되풀이 함으로서 南北對話는 이때부터 事實上 膠着狀態에 빠져있다.

筆者는 이와같은 事態發展의 基本性格을 分析키 위해 南北對話의 基本方針이 된 7.4 共同聲明의 基本精神과 그것이 담고있는 解釈士의 問題性에 대해 暫時論及하고자 한다. 그것은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諸要求, 主張, 提議 등이 7.4 共同聲明과 關聯하여 歪曲解釈되고 있다는데 問題性이 있기 때문이다.

7.4 共同聲明은 ①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解決하여야 한다. ②統一은 서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拠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하여야 한다. ③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于先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하여야 한다 라고 明示되어 있다.

즉 이 7.4 共同聲明의 基本精神을 다시 整理하면, 平和的 自主的 民族統一이라는 弱極的 目的을 相互確認하고, 이 弱極的 目的으로서의 平和的 民族統一을 達成하는 方法으로서 ①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 오직 自主的 努力으로 推進되어야 하며 ②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拠해서는 안되며 ③思想과 理念, 制度를 超越하여 于先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7.4 共同聲明을 두고 우리가 考慮해야 할 것은 어떠한 規定

事項의 表現에 있어서 그것을 承認하고 解釈하는 主觀的 多樣性を 完全히 排除할 수 있을 程度로 完璧한 明示를 期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는 事實이다. 이 7.4 共同聲明을 解釋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自己合理化를 위한 主觀的 便宜의 解釋이 나올 수 있는 余地가 充分히 있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平和的 民族統一을 達成하는 方法으로서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라고 한 明示를 北韓側은 그들의 戰略的 考慮에서 그들이 要求한 「軍事問題 5個項」과 關聯하여 이를 便宜解釋하여 그들 主張의 合理性을 내세우는 口實根拠로 삼고 있다. 즉 그들은 이 聲明을 駐韓美軍의 撤収와 關聯하여 이를 便宜적으로 擴大解釋하고, 오늘날 UN 舞台에서 보는 바 처럼 北韓은 自主的 努力에 依한 民族統一이란 名分을 내세워 駐韓美軍은 하나의 外勢로 看做하고, 그 自体의 存在는 外勢의 干涉에 該當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또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拠해서는 안되며」하는 明示를 亦是 그들이 내세운 「軍事問題 5個項」과 關聯하여 이를 便宜解釋하고 있다. 즉 그들은 武力行使를 가장 効果적으로 排除하는 方法은 相互의 武力增強과 軍備競争을 中止하고 軍事力을 最少限으로 減縮하는 길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思想과 理念, 制度를 超越하여 于先 民族的 大團結을 圖謀해야 한다」고 하는 明示를 口實根拠로 하여, 그들은 社會各界各層의 人士들과 政黨, 社會團體의 代表들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를

構成해야 하며, 하나의 民族国家로 統合하기 위한 暫定措置로 南北聯邦制를 確立해야 한다는 主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7.4 共同声明을 承認하는 우리의 立場은, 이 声明의 基本精神은 自主的 平和的 民族統一이라는 弱極的 理念을 相互確認한 것이며, 앞으로 이를 現實적으로 具顯시킬 歷史的 段階에 到達하는 경우, 어떠한 外勢의 干涉도 반응이 없이 오직 自主的 努力에 依해 問題를 解決한다는 未來志向的 意義를 담고 있다고 解釈하는 것이다.

우리는 特定한 用語가 戰略적으로 解釈되거나 「이데올로기」의 色彩를 띄어 多様な 含蓄性을 露呈하는 경우를 흔히 窺見한다. 北韓의 解釋도 또한 그 典型的 例로서 볼 것이며, 그들의 戰略에 따라 便宜적으로 歪曲되거나 擴大解釋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가 南北對話를 통해 現實적으로 期待할 수 있는 當面の 成果는 南北間의 對立狀況을 于先 止揚하는 길이며, 緊張을 緩和하고 武力衝突의 可能性을 排除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争점이 許多히 介在할 수 있는 政治的 軍事的 問題解決에 앞서, 무엇보다 4半世紀동안 累積되어온 相互不信의 障壁을 徐徐히 除去하고 相互信賴의 바탕을 造成해 나갈 眞摯하고도 理性的 根本姿勢가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北韓이 7.4 共同声明의 明示를 그들의 當面政策과 戰略을 合理化하기 위한 口實根拠로 삼거나 國際舞台에서의 宣伝道具로 逆利用하고 있다는 이 事實만으로도 우리가 當面の 成果로서 期待하는 相互信賴의 바탕을 造成하는 일조차 얼마나 至難

한 것인가를 實感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提議가 얼마나 飛躍的인 것이며, 非現實的이고 虛構的인 것인가를 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 4半世紀 동안에 걸친 分斷이 가져온 思想과 理念, 体制의 懸隔한 差異와 極度로 深化된 相互不信, 異質化된 社會, 文化 등으로 해서 南北間의 問題가 그렇게 飛躍的으로 進涉될 수 없다는 것은 事理있는 判斷으로서는 自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民族的 團結에 決定的인 障礙要因이 되어 있는 것을 軍事的 政治的 對決이기 때문에 이 障礙를 먼저 除去하는 것이 余他の 事業을 進涉시키는 捷徑이라고 頑強히 主張하고 있다. 마치 障礙가 되는 바윗돌을 맨손으로 無條件 때려부셔야 한다는 論理이다. 바윗돌을 除去하기 위해선 먼저 必要的 裝備가 準備되고 豫備的 先行的 作業過程이 앞서야 한다.

北韓의 이와같은 主張은 韓國問題의 歷史的 背景을 實感있게 理解치 못하는 第三者에게는 얼핏 듣기에 그럴듯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相國統一노력이 進涉되어 實質的으로 南北間에 民族的 團結과 統一課業을 決定的으로 매듭지을 段階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過程을 밟아야 하는 것은 當然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段階가 되었을 때에는 굳이 反對할 理由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보다 積極的으로 그러한 方向으로 努力할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아무리 必要的 事業이요, 반드시 解決해야 할 問題라 하더라도 그 實現 可能性의 有無如何에 대한 眞摯한 埋性的 判斷이 있어야 할 것이다. 現段階에 있어서 전혀 實現性도 없

고, 实效性도 없는 条件下에서 問題의 當爲性만을 固執하고 되풀이 한다해서 問題가 解決될 수는 없을 것이다.

Ⅲ. 結論 (經過에 대한 評價와 戰略上的 考慮)

오늘날의 共產主義는 Monolithic 한 体系的 權威를 자랑할 수는 없다.

「프로레타리아」의 國際主義보다 個別國家의 國家利益이 政策樹立의 優先要因이 되어 있다.

「스타린」체제의 崩壞, 「후르시초프」체제의 過渡期를 거쳐, 오늘날의 蘇聯의 集團指導體制와 共存路線의 定立, 「이 테올로기」의 純粹性を 提唱한 中共의 教條主義가 美國을 비롯한 資本主義國家와의 共存과 閉鎖體제의 開放化로 方向轉換을 하였다는 이 一聯의 事實은 이를 雄弁으로 말하고 있다.

北韓支配層이 自身の 路線을 正當化하기 위한 根拠로 利用하는 「맑스, 레닌」의 經典의 어느 구석에도 特定한 한 사람만이 唯一한 正義의 基準이고 모든 價値의 根源이라는 思想을 承認한 대목은 없다. 오늘날 北韓의 極限的 唯一支配體制는 世界的 潮流의 變化에 따라 分明히 새로운 轉換을 맞이 할 段階에 있다고 보아진다. 個人偶像化를 위한 歷史의 捏造과 「샤마니즘」의 聖物崇拜 權力의 基盤을 極度로 縮少시킨 族閥政治와 極端的 權威主義, 要컨대 이 모든 前近代的이며 非正常的인 統治構造는 이제 그 維持能

力の 限界에 到達한 感이 있다. 北韓의 体制變化는 일어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뜻밖에도 빠른 速度로 다가올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速度에 대해서 지나친 期待를 걸기 보다 하나의 長久한 過程으로 把握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分명한 것은 北韓社會가 閉鎖的 硬化性을 더 할수록 前近代的 要素가 累積되어 落後性을 免치 못할 것이며, 反對로 北韓社會가 開放化할 수록 外制的 要因으로 해서 体制變化의 「템포」를 加速시킬 것이다. 오늘날 그들은 그 硬化된 閉鎖性의 限界를 認識하고 外延的 接觸을 서둘고 있다. 70年代에 접어들자 눈부시게 展開된 그들의 國際外交關係의 擴大努力은, 그것이 그대로 北韓社會의 開放性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外延的 接觸이 주는 外制要因을 決코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北韓社會를 念頭에 둔 事態의 歷史的 發展을 이와같이 觀望할 경우 우리는 序論에서 提示하였던 統合理論으로서의 收斂論的 見解에 보다 接近하고 있음을 發見한다. 歷史發展過程에 있어서의 樂觀的 統合理論으로서의 收斂論에 接近하는 限, 그 積極的 戰略理論으로서의 機能主義的 接近法 (Functional Approach)이 可能하다는 前提가 成立한다. David mitrany教授가 提示한 國際的 統合 (International Integration), 地域的 統合 (Regional Integration), 그리고 國家的 統合 (National Integration)을 위한 機能主義的 接近法은 相互의 紛爭을 非軍事的 非政治的方法에 依한 解決을 主張하며 戰爭을 排除하고 平和를 回復하기

위한 理論이자 努力의 一端이라 할 것이다.

機能主義의 核心的 前提는 人間의 合理性 (Rationality)에 바탕하여, 對立보다 調和와 和平 (Harmony and peace)을 希求하며, 人類의 漸進的 向上과 發展이 可能하다는 收斂論的 樂觀論이며, 또한 이와關聯하여 特定한 分野에서 얻은 經驗은 다른 分野에서의 問題를 解決하는데 좋은 「모델」이 되며, 이러한 「모델」에 의한 成功的인 經驗과 實驗은 그것이 蓄積되고 擴大되어 結局에는 國際社會建設의 土台(統合의 基礎)가 된다는 波及效果 (Spillover Effect)를 認定하는데 있다.

이러한 機能主義的 接近法에 의해 南北對話의 過程을 보는 경우 南北統一 즉 政治的 統合 (Political Integration)이란 窮極的 目標을 위해서는 機能主義的 側面에서의 길고 긴 統合의 旅程이 必要할 것이다. 1970年 以前의 南北關係를 統合尺度 (Integration Scale)로 보아 0%라고 한다면, 1970年 8月 15日의 朴大統領의 宣言, 1971年의 南北赤十字社會談開催合意, 1972年의 南北赤十字社會談開催, 그리고 7.4 共同聲明까지의 急進的 發展過程은 적어도 10%~15% (比較를 위한 任意假定數值)의 統合尺度表示가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1973年 6月 23日의 朴大統領의 平和統一外交宣言을 契機로 하여 北韓이 보여준 逆行的 反應과, 金大中氏事件을 口實로 한 1973年 8月 28日의 北韓側의 一方的 宣言은, 이것을 悲觀的으로 보는 경우 그 統合尺度가 10%~15%에서 다시 0%로 還元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를 悲觀

的으로 보는 경우 5% (任意假定数值)로 減退했다 볼 것이다.

機能主義的 接近法에 대한 批判論者로서 Inis L. Claude 教授는 政治와 經濟, 社会的 面이 人間活動에서 分類된다는 點을 原則的으로 否定하고 비록 그것이 分類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政治的 考慮가 先行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으며, 人間の 合理性에 바탕하여 國家(政治体制)에 대한 忠誠心(Loyalty)을 統合機關이나 이를 위한 새로운 制度에 대한 忠誠心으로 移行한다는데 悲觀的 見解를 갖고 있다. 그간의 南北對話의 進展과 오늘의 急變의 挫折은 Claude 教授의 批判論이 보다 現實的 分析임을 實感케 하기도 한다. 그러나 特定한 政治的 變化의 局面 또는 危機에서는 政治的 考慮가 余他の 모든 側面의 考慮를 一時에 扞拭시킬 수도 있지만, 이러한 變化의 局面 또는 危機가 徐徐히 解消될 경우 機能主義的 接近法은 다시 蘇生하게 된다 볼 것이다. 새로운 統合을 위한 制度나 機構에 대한 忠誠心은 統合理念이 또한 同時에 最高의 政治理念이 될 수 있을 경우, 이러한 忠誠心の 移行은 充分히 있을 수 있다.

南北對話를 통한 民族의 平和的 統一이 統合理念이자 最高의 政治理念인 以上 이를 위한 制度나 機構에 대한 忠誠心이 그 正統性을 確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特定한 政治的 變化의 局面이나 危機에서 오는 挫折에도 不拘하고, 또 그것은 持統的인 것이 아니라 一時的인 것이라는 事實을 認識하고 機能主義的 接近法의 一環策으로서 우리가 持統해온 對話進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客觀的 條件의 變化에 따라 効率的으로 繼續 發揮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點에서 8.28 北韓의 一方的 宣言

에 대한 8.29 우리側の 余裕있는 対応策은 높히 評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UN의 同時加入이 北韓側의 反對가 있는 限, 事實上 實現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北韓으로 하여금 繼續國際舞台에 있어서의 接觸의 度를 더하게 할수록 그들 自體의 體制變化를 促進시키는데 寄与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硬化되고 獨善的 戰略의 柔軟化를 또한 促進시킨다는 巨視的 眼目에서, 그들의 國際關係設定의 範圍擴大에 대해서는 從前에 우리가 가졌던 抑止戰略을 柔軟히 止揚해야 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6.23 朴大統領의 平和統一外交宣言은 또한 높히 評價해야 하고 우리의 對外戰略의 새로운 局面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 EC의 成功은 우리가 模索하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機能的融合 (Functional Association)을 위해 鼓舞的 資料를 提供해주고 있다. EC諸國은 中世以來 同一한 文化圈을 形成해온 바탕에서 第2次大戰後 유럽統合을 위한 活潑한 努力이 展開되어, 克服키 어려운 政治的 統合은 뒤로 미루고, 經濟的方面을 비롯한 多方面의 機能的 統合을 成功的으로 達成해 오고 있다.

특히 Blant의 Ostpolitik는 우리에게 한가지 重要한 戰略上의 參考를 提供해 준다. 오늘날 Blant의 東方政策의 놀라운 奏效로 해서 現在 東西獨間에는 100萬以上の 住民이 年間 往來하고, 74回線의 直通電話가 架設되어 있고, 年間 40億「마르크」에 達하는 物資交易이 行해지고, 「베르린」通行協定の 發効와 東西獨

間 交通 運輸條約의 締結을 보게 되었다. 이와같은 東西獨의 機能的 融合의 試圖는 西獨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達成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그를 위한 Blant의 東方政策은 于先 東獨보다 앞서 東獨과 隣接한 「포오란드」 蘇聯등 東亞共產諸國과의 和解潮流를 먼저 이룩하고, 이러한 周邊潮流에 東獨으로 하여금 마지못해 이에 同調하겠음 外制的 手段을 먼저 造成했다는 點을 우리는 參考해야 할 것이다. 東西獨關係와 우리의 南北韓關係를 同一한 基準에서 볼 수는 없지만 이와같은 Blant의 接近方法은 우리에게 큰 示唆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至極히 閉鎖的인 北韓으로 하여금 機能的 融合의 길에 同調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北韓과의 忍耐性있는 對話의 持續을 試圖하는 한편, 北韓의 背後國家인 蘇聯 中共에 대한 和解의 潮流를 積極摸索하여 그러한 潮流의 힘에 의해 北韓으로 하여금 우리가 企圖하는 方向으로 誘導하는 戰略的 考慮가 매우 重要하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南北間의 政治的 統合은 兩側의 長久한 體制變化의 過程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가까운 將來 이를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이 過程은 또한 雙方에 다 같이 重大한 挑戰(Challenge)을 던져 주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결코 安易한 姿勢로 받아 드릴 수 없을 만큼 深刻한 것임을 覺悟해야 할 것이다. 이 挑戰에 對應하는 길은 무엇보다 우리의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體制를 더욱 바람직하게 發展시켜야 하며, 高次的인 民族理念과 拳國的 團結을 堅持하고 對話過程에서 있을 數 많은 迂余曲折을 忍耐와 智慧로서 克服해야 할 것이다.

第2編 討論을 통한 問題点의 整理

1. 70年代의 國際情勢變遷에 對한 概觀

第二次世界大戰 以後 世界는 대체로 三段階의 國際秩序의 再編過程과 力關係의 再調整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國際秩序의 再編 乃至 再調整의 첫번째 段階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時期로 이 時期의 特徵은 모든 國際政治가 오로지 原子力을 独占적으로 所有한 美國의 意思에 依하여 調整되고 있었던 點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948년에 이르면 美國과 함께 蘇聯도 原子力을 分占하게 되고 따라서 國際秩序도 이른바 冷戰時代라고 부르는 美蘇兩極體制에로 접어든다. 이 時期가 國際秩序의 두번째의 改編 乃至 再調整의 時期이다. 東西兩陣營은 相互對決의 原理를 내세워 1948년의 西伯林 封鎖事件, 1949년의 印度支那問題 및 1950년의 韓國戰爭 등을 둘러싸고 힘의 對決을 試圖하게 된다.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世界는 다시 한번 國際秩序의 改編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세번째의 段階에 있어서의 國際的인 力關係의 再調整은 1960年 以後의 이른바 中蘇理念紛爭이 實際化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나타나기 始作한 美蘇 두 強大國家에 對抗하는 勢力들에 依한 原子力의 共有現象이라고 볼 수 있다. 이 時期의 國際政治의 特徵은 美蘇의 平和共存이다.

이제 1970年代를 맞이하면서 國際秩序는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東西兩陣營間의 開放的인 對立으로부터 協商과 妥協에 依한 脫이데오로기의인 多極化時代에로 접어든다. 이러한 國際情勢의 새로운 흐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戰後의 冷戰體制를 벗어나서 和解와 現狀維持의 바탕위에서 強大國들이 平和共存하려는 새로운 勢力均衡의 模索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닉슨의 北京訪問, 從來에 볼 수 있었던 美國中心의 同盟國間의 集團安保體制의 政治的, 經濟的 性格에로의 변모, 英國의 歐洲共同市場加入, 兩獨의 蘇聯 및 東歐諸國과의 國交正常化로 代表되는 東方政策, 越南戰의 休戰成立 등은 바로 이러한 和解와 現狀維持의 바탕위에서 行해지는 實利追求의 傾向을 띤 새로운 國際情勢의 具體的인 樣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冷酷한 國際情勢의 變遷에서 볼 때 第二次世界大戰의 戰後處理過程에서 分斷되었고 東西兩陣營間의 이데오로기의인 分極化에 依하여 더욱 加速度的으로 冷戰體制의 소용들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버리고만 韓半島의 分斷狀態는 새로운 國際情勢의 흐름인 脫이데오로기의인 平和共存과 함께 美蘇兩極에 依한 冷戰體制가 새로운 勢力均衡을 爲한 多極體制에로 변모되면서 緊張緩和를 내세워 現狀維持의 方向에로 흘러감에 따라 우리民族의 統一에로 向하는 努力은 새로운 次元에서 提起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동안에 이러한 冷酷한 國際政治의 소용들이 속에서 무수하게 犧牲과 挫折을 強要當해온 民族의 受難을 더 이상 受動的으로만

甘受할 수 없다는 統一에 向하는 全体民族의 意志를 土台로 삼아서 이러한 國際情勢의 흐름에 能動的으로 對処하는 길로서 南北 對話를 始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 韓半島의 統一에 作用하는 「民族外在的」條件에 對한 分析

—美, 中, 蘇, 日 四大國間의 力關係—

第二次世界大戰 以後 亞細亞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強大國의 勢力均衡關係를 年代別로 간단히 살펴보면

1950 年代의 亞細亞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形成된 勢力均衡 乃至 勢力類型은 中蘇블럭 對 美國 同盟體制間의 葛藤이라고 볼 수 있으며 特히 東北亞細亞에 있어서는 6.25에 依하여 그 絶頂을 이루었다.

1960 年代에 있어서는 이것이 漸次로 瓦解되어 갔다. 即 中蘇理念紛爭, 후르시초프의 革命不可避論의 止揚, 平和共存, 이데오로기 後退現象, 國家利益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1970 年代는 새로운 勢力均衡으로 代置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은 美, 蘇, 中共의 三大國間의 均衡에 左右될 것이며 여기에 日本이 第四勢力으로 登場하고 있다.

이제 美, 蘇, 中共의 三角關係를 먼저 中共과 蘇聯間의 側面에서 본다면 兩者 共히 政權이 바뀐다면 和解가 促進될 수도 있

했지만 国境紛争問題는 决코 單純치 않으며 1950年代의 密着된 同盟關係로 回復될 것 같지는 않다.

다음 美国과 蘇聯間의 側面에서 볼 때 相互和解의 基盤을 構築하고 있다. 兩國은 核戰爭回避를 共通된 利害로 認定하고 있으며 많은 重要的 問題 - SALT, 中東問題 等 - 에 있어서 協商을 試圖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中共에 直接的으로 対処하려는 協商이라기 보다는 共同支配體制라고 하겠으며 美蘇兩國은 中共을 相對方에 對한 牽制勢力으로 評價하고 있다. 왜냐하면 美国과 蘇聯은 그들의 戰略的인 優勢로 因하여 아직도 어떤 第三國보다도 相互間에 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美 中共間의 側面에서 본다면 73年11月 키신저의 北京訪問에서도 본 바와 같이 漸次로 接近의 度를 높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美国 蘇聯 中共 三國은 다른 두 나라 間의 葛藤에 依하여 利益을 얻고 있으며 다른 두 나라가 合勢하여 自國에 對抗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勿論 美国이 露骨的으로 그 憂慮를 表示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中蘇結束의 再現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것은 두말할 余地가 없다.

여기에 이른바 「닉슨·독트린」의 意義를 간단히 考察한다면 「트루먼·독트린」時代의 美国 指導者들이 美国을 共產侵略의 阻止와 全世界的인 規模로 共產主義를 紛碎하기 위하여 尽力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比하여 「닉슨·독트린」은 美国國民과 議

회의 輿論에 依하여 이러한 思考方式이 拒否된 데서 나온 것이라
고도 볼 수 있다. 國際政治的으로는 1968 ~ 1970 年代 初에 匪
細匪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美國의 影響力은 前에 없었던 要因
- 戰略核武器面에서의 美 蘇의 均衡, 蘇聯 海軍의 印度洋 進出,
中共의 核戰略國家로서의 登場, 日本의 潜在的 軍事大國으로서의
대두 - 들에 依하여 制約되어 가고 있다. 또 68 年부터는 經濟
的인 面에 있어서도 그 低下의 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海外의
過剩介入에서 오는 軍事費負擔의 過重으로 因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從前의 思考方式은 後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한 마디로 말해서 힘의 限界를 自覺하게 되었다
고도 볼 수 있다. 即 이것은 Pax - Americana, 나아가서는
Pax - Russo - Americana 까지도 舞台뒤로 사라져 가기 始作하
였다는 느낌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美國이 世界最強國
의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70
年代를 通하여 蘇聯과 더불어 超大核國家로서의 兩極을 維持하리
라는 것은 疑心할 余地가 없다.

71 年 7 月 "美國은 이미 世界를 完全히 克服할 수 있는 立場
에 있지 않다"고 宣言하고 아울러 西歐, 日本, 中共 等과 指導
的 役割을 分擔하려는 것까지도 闡明한 바 있다. 이러한 事實은
美國이 從前과 같은 介入을 縮少하고도 勢力均衡을 이룰 수 있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새로운 美國의 外交政策의 展開를 世界的인

潮流와 人類의 歷史가 어쩔 수 없이 過去는 過去대로 씻어 버리고 恒常 現在의 位置를 定立함과 同時에 未來를 創造하는 꿈에 부풀 수 있다면 否定的인 世代의 終末을 告하고 肯定的인 世代의 出発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제 美國은 自己陣營의 盟主로서 自由陣營의 守護者로 自處한 世界到處에서의 軍事介入을 止揚하고 새로운 勢力均衡, 마치 1815年 오스트리아의 멧테르니히式 外交方式을 模倣하여 여러 強大國의 勢力均衡의 維持를 模索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의 關聯에서 最近 美國 外交政策의 基調를 보면 自己의 盟邦과 美國의 競爭者間에 이루어지는 和解를 싫어 한다고 까지는 表現할 수 없으나 어떠한 和解이든지 美國과 共產強大國間에서 꾸며지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잘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軍事的으로는 日本의 核武裝問題는 對中共과의 協商에 있어서 또 西歐自身の 統合된 核武裝問題는 對蘇關係의 協商에 있어서 困難하게 됨으로 反對하고 있다. 그러므로 日本의 制限된 在來式再武裝에는 反對하지 안해도 日本이 美日安保條約이 不充分하다고 해서 日本自身이 軍國主義로 나가거나 中立主義로 나가는 것을 反對하고 있다.

지난날의 國際政治에 있어서는 外交가 戰略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國際舞臺는 經濟, 金融, 科學, 技術 等 多方面으로 擴大되었고 또 이러한 分野에서 活動하는 相互關係가 對決이 아닌 協商의 樣相을 띄어가고 있는 바와 같이 韓半島를 둘러싼 「民族

外在的」條件으로서의 國際政治의 변모, 特히 美國 外交政策의 轉換에 能動的으로 對処할때에 비로소 올바른 南北對話의 方向을 設定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韓半島의 統一에 作用하는 「民族內在的」 條件에 對한 分析

- 8.15 宣言, 7.4 共同聲明, 6.23 外交政策宣言 -

第二次世界大戰의 戰後秩序를 定立하는 過程에서 敗戰 日本軍의 武裝解除를 위한 便宜的인 分界線으로 設定된 韓半島의 38度線은 美 蘇를 兩極으로 하는 冷戰體制가 굳어지면서 民族分斷의 障壁 固定化되면서 우리 民族의 念願인 統一民主政府樹立의 要求와 努力은 번번히 挫折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5年12月 韓國問題處理를 위하여 召集된 이른바 「모스크바」 三相會議가 뜻밖에도 美, 英, 中, 蘇의 4大國에 依한 最長 5個年의 信託統治案을 決議하고 그 準備를 위한 美蘇共同委員會의 設置를 決定하기에 이르자 光復의 기쁨에만 도취되어 있던 우리 民族은 全體 民族이 한덩어리로 뭉쳐 그 不當性에 對한 鬪爭에 나섰으나 共產主義者들이 하루아침에 贊託으로 그 態度를 突變하였기 때문에 鬪爭의 實効性을 거두지 못하였고 또 1946年과 1947年의 두차례에 걸쳐서 열린 美蘇共同委員會마저 失敗하자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U.N으로 移管되었고 1947年11月14日

U·N 總회가 U·N 監視下의 南北總選舉를 통한 韓半島에 있어서의 統一政府樹立을 決議하였지만 U·N 韓國復興委員團의 總選實施準備를 위한 38 度線 以北의 訪問이 蘇聯占領軍과 共產主義者들에 依하여 不可能해지자 民族分斷의 終止符를 적고 統一政府를 樹立할 수 있었던 두번째의 絶好의 棧會마저 霧散되고 말았다. 그 結果로 可能한 地域에서의 總選舉를 통한 大韓民國이 樹立되어 1948 年 12 月 12 日 U·N 總회에서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로 承認되고 民族史의 正統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 以後 民族相殘의 6.25 를 거치면서 南北의 對峙狀態는 보다 激化되어 民族의 念願인 祖国의 自主적이고 平和적인 統一은 冷戰體制의 犠牲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韓半島 統一에 作用하는 「民族內在的」 條件의 改善을 위하여 1970 年 8 月 15 日 武力挑發을 中止하고 平和統一을 앞당기기 위한 民族的意志의 表現으로서 「開發과 發展과 創造」를 통한 南北間의 善意의 競争을 促求하는 平和統一構想의 闡明인 8.15 宣言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8.15 宣言의 意義는 實로 民族分斷 4 半世紀만에 그동안 累積된 南北關係의 改善과 實質적인 平和統一의 方向을 闡명한 劃期的이고 進取的인 政策의 表明이라는 點에서 찾을 수 있다. 平和共存과 現狀維持를 바탕으로 하는 現今의 冷酷한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한 民族的意志의 表現인 이러한 8.15 宣言도 처음에는 北韓側에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이른바 四大軍事路線의 完了를 통하여 오히려 緊張狀態만을 더욱 造成하였지만 이에

對処하는 우리 國民들이 總和体制앞에 더 以上 견뎌내지 못하고 韓半島의 眞正한 平和를 構築하고 現實的으로 平和統一을 追求하기 위해서는 南北間에 對話의 門을 열어 서로의 不信과 誤解를 蠲하고 信賴와 理解의 바탕을 넓혀가기 위한 努力의 一端으로 提議된 非政治的인 人道的對話인 南北赤十字會談開催를 北韓側이 받아들임으로서 對話가 始作된 것이다.

이러한 人道的對話로 부터 門을 연 南北對話는 이제 民族의 念願인 統一에의 意志를 보다 具體的으로 實現시킬 수 있는 統一에로의 接近試圖의 擴張으로서 韓半島에 있어서 戰爭 再發의 危險을 없애고 나아가서는 不安定한 平和의 狀態를 보다 永続的이고 安定된 平和狀態에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南北間에 놓여 있는 南北問題의 解決을 위한 常設的인 協議調整機構의 必要性이 要請되기에 이르러 歷史的인 7.4 南北共同聲明이 나오게 된 것이고 또 이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을 誠實하게 遂行할 機構로서 南北調節委員會를 發足시킨 것이다. 南北共同聲明의 基本精神은 한 마디로 말해서 韓半島에 있어서의 緊張을 緩和하고 相互의 關係를 改善하여 不信과 誤解를 信賴와 理解의 분위기로 造成하기 위하여 南北은 ① 外勢依存 또는 外勢干涉이 없는 自主的인 民族統一의 成就 ② 武力에 依存하지 않는 平和的方法으로의 統一 ③ 思想과 理念과 体制의 差異를 超越한 民族의 大團結의 圖謀라고 하는 그야말로 純粹한 우리 民族의 念願의 表現으로 要約할 수 있다.

한편 北韓側도 72年1月 在日本北韓 代辯人의 워싱턴·포스트紙 記者에 對한 發言 「美軍이 韓國에 남아 있어도 韓國과의 不戰 條約을 締結할 用意가 있으며 또 韓國에서의 美軍撤収 없이도 對決關係를 終結시킬 수 있다」는 記事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비록 戰略的인 平和攻勢임은 明若觀火의 事實이지만 南北 對話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하나의 「民的內在的」條件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統一에로 向하는 民族的意志를 바탕으로 하여 進行된 南北對話가 우리들이 期待했던 바와는 달리 實質問題에 들어가자 北韓側이 全的으로 非現實的이고 不合理한 主張 即 南北赤十字會談에 있어서의 「法律的, 社會的 條件 및 環境의 改善」이니 南北調節委員會會議에서의 「5個項 軍事問題 先決」이니 하는 主張으로 因해서 膠着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이와같은 狀況아래에서는 南北對話의 實質的인 進展이나 成果를 期待할 수 없기 때문에 南北間에 가로 놓여 있는 이러한 不信과 緊張의 要因을 조금이라도 緩和하는 努力을 先行시킴으로써 南北對話를 效果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輿件을 造成할 必要에서 取해진 膠着狀態의 打開策으로 나온 것이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으로 이는 바로 南北對話의 實質的인 促進策인 同時에 民族分斷의 悲劇을 하루 速히 解消하고 自主的으로 平和統一을 成就하려는 民族的念願인 統一에의 意志를 具現하는 보다 次元 높은 統一政策이며 平和의 定着위에서 統一을 追求하려는 努力의 表現이라고 볼 수 있다.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는 平和共存의 國際的인 潮流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면서 어떻게 現狀打破가 前提되는 自主的이고 平和的인 統一을 위한 努力을 傾注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分明히 알아야 할 事實은 民族의 統一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 目的이요 目標인데 反하여 國際情勢에의 對處는 目標의 達成을 위한 手段과 方便이라는 點이다. 따라서 民族의 念願인 自主的이고 平和的인 祖國統一의 大前提가 되는 平和를 韓半島에 定着시키기 위해서는 緊張緩和를 指向하는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適應하는 것은 賢명한 길이며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은 平和統一에로 向하는 努力의 積極的 表現인 同時에 보다 現實的이고 實質的인 平和統一의 與件을 造成하기 위한 次元 높은 統一戰略의 表明인 것이다.

4. 統一理論의 基本原理

- 收斂論과 機能主義的 接近方案 -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統一을 위한 接近方式은 優先 現實的으로 南과 北에 存在하는 理念과 思想과 體制의 差異를 率直하게 認定하고 이 理念과 體制의 差異를 窮極的으로는 解消시켜 全體民族의 念願인 統一意志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對話를 通하여 서로의 信賴와 理解의 바탕을 構築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兩體制間의 異質性을 等質化하기 위한 努力으로 段階的인 接近 即 人道的 및

文化的接觸 → 非政治的接觸 → 政治的接觸이라는 三段階 接近方式을 原則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政府의 段階的 接近方式은 이미 東西獨間의 接觸에 試圖된 바 있다. 그러나 獨逸의 경우 兩獨은 接觸의 目標로서는 民族的同一性を 維持하면서도 現實的으로 領土와 政府의 統一은 暫定的으로 拋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달리 그 戰略에 있어서 緊張緩和 → 武力拋棄 → 相互交流의 段階的推進이라는 接近方式을 取하고 있는 것이다.

統一을 위한 段階的 接近方式의 理論的인 根拠는 하나의 假說로서의 收斂論이다. 오늘날 分斷國家들 特히 冷戰體制의 產物인 理念과 體制의 差異를 現實的인 條件으로 갖고 있는 分斷國家들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하나의 假說로서 提示되고 있는 收斂論은 民主主義와 共產主義가 비록 그 理念面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하지만 서로의 接近에 依하여 收斂의 狀態가 可能하다고 보는 希望的 統合理論의 하나이다.

이러한 收斂論의 要旨는 대체로 經濟的인 側面에서 大衆消費社會가 實現되면 福祉國家가 이룩되고 그렇게 되면 理念이 다른 두 社會 即 民主社會와 共產社會는 하나의 同一한 形態를 取하는 產業社會으로 發展되며 이러한 產業社會은 大衆이 一般的으로 理念의 問題에는 깊은 關心을 쏟지 않는 非이데오로지社會 곧 「테크노크라트」가 支配하는 社會로 된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收斂論의 立場은 民主社會도 共產社會도 아닌 結局 두 理念이 接近하여 人間의 創造的인 삶을 保障해 주는 理想社會인 하나의

統合社會의 建設을 前提로 삼는다. 이러한 收斂論이 指向하는 理想社會란 生活樣式에 있어서는 資本主義를 整然한 社會秩序의 確立을 위해서는 共產主義를 따르는 折衝式 統合社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收斂論이란 어디까지나 人類의 將來를 위하여 戰爭을 防止하려는 試圖로서 主張된 希望的인 統合理論은 될지언정 두 理念에 對한 組織的이고도 体系的인 分析에서 나온 科學的理論이 아님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하나의 希望的인 假說로서의 收斂論을 原理로 하여 政府는 統一의 具體的인 接近에서는 棧能主義的인 接近方式을 取한다. 元來는 東西兩陣營間의 体制的協力에 關한 理論으로 提示된 棧能主義論의 要旨는 東西兩陣營이 비록 理念과 体制의 面에서는 다르지만 이러한 이데오로기의인 側面을 除外한다면 東西兩陣營間에는 棧能的인 對話가 可能하다고 보는 見解이다. 即 理念과 体制가 다른 國家間에 있어서도 棧能的分野의 協力を 通하여 世界를, 또는 어느 한 地域을 하나의 새로운 社會로 結合시켜 共同社會로 發展시킬 수 있다는 것을 基本論理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棧能主義論도 다음 몇가지의 假說

을 基礎로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卽 첫째로 棧能主義
論은 人間의 合理性을 믿고 있으며 둘째로 人類는 戰爭과 對
立보다는 平和와 調和를 希望하고 있으며 셋째로 戰爭의 根本
原因은 社会的, 經濟的인 側面에서 提起되기 때문에 國際平和의
捷徑은 貧困을 打破하고 文盲과 疾病을 征服하여 福祉社會를 建
設하는 길임을 믿는 데서 부터 出發한다.

이러한 棧能主義者들의 論理에 따르면 理念과 體制가 다른 國家
間의 協力關係는 政治的인 것과 非政治的인 것으로 나눌 수 있
고 非政治的인 協力關係는 比較的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어느 한 非政治的인 協力關係의 成功은 곧 다른 棧
能間의 協力에 「波及效果」를 가져와서 統合運動으로 發展된다고
한다. 現在 進行되고 있는 南北對話는 바로 이러한 希望的인 假
說로서의 統合理論인 收斂論의 原理에 좇아 棧能主義的인 接近方
式으로 推進되고 있는 것이다.

5. 人道的 對話로서의 南北赤十字會談에서 보여준 雙方間의 問題點.

民族의 念願인 祖上의 自主的이고 平和的인 統一意志의 具體的인 表現은 政府의 統一接近方案으로서의 南北對話의 最初의 通路인 南北赤十字會談으로 나타났다. 南北赤十字會談은 1971年 8月 12日 韓赤側의 赤十字會談 提議로부터 1972年 8月 11日 第25次 予備會談에 이르기까지의 25차례의 予備會談에서 南北赤十字 本會談에서 다룰 議題로서 다음과 같이 雙方間에 合議했다.

即 南北間에 혼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 ① 住所와 生死를 알리는 問題.
- ② 自由로운 訪向과 相逢을 實現하는 問題.
- ③ 自由로운 通信往來를 實現하는 問題
- ④ 自由意思에 依하여 再結合하는 問題.
- ⑤ 其他 人道的으로 解決해야할 問題等이다.

1972年 8月 30日과 9月 30日 평양과 서울에서 온겨례의 歎呼속에 幕을 올린 會談開始의 祝祭的인 序曲에 이어 1972年 10月 평양에서 열렸던 第三次 會談에서는 雙方은 會議進行을 위한 原則을 서로 提示하였는 바

大韓赤十字側은 討議進行을 위한 6個 原則으로서,

- ① 이 事業은 어디까지나 赤十字가 主管해야 하고 双方의 赤十字는 모든 責任을 지고 事業을 끝까지 完遂해야 한다.
 - ② 이 事業에 있어서 赤十字의 本質을 저해할 念慮가 있는 모든 要素는 一切 排擯되어야 한다.
 - ③ 이 事業의 推進에는 当事者 各個人의 自由意思가 絶對 尊重되어야 한다.
 - ④ 이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는 当事者 各個人의 身上內容에 關한 秘密이 保障되어야 한다.
 - ⑤ 双方은 이 事業의 推進을 위한 合議가 이루어 지는 데로 곧 事業에 着手하여야 한다.
 - ⑥ 이 事業은 正確하고 또 신속하게 處理되어야 한다.
- 등을 提示하셨고 이에 反하여 北赤側은 討議를 위한 五個原則으로서

- ① 主体的 立場을 堅持한다.
- ② 民主主義原則과 自由로운 原則을 徹底히 貫徹한다.
- ③ 南北間 相互理解와 信賴를 두터히 하고 民族的 和睦과 大團結을 圖謀하는 原則을 堅持한다.
- ④ 赤十字 人道主義의 原則을 徹底히 堅持한다.
- ⑤ 拳族의인 은 民族事業으로 推進해 가는 原則을 徹底히 供頭한다. 등을 提示하였다. 한편 韓赤側은 또 위에서 든 討議 6個原則에 立脚하여 合議된 議題의 實踐을 위한 具體的인 節次와 方法으로서

첫째, 事業의 節次에 있어서는

① 双方 赤十字는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들로부터 住所와 生死를 알아낼 것을 願하는 依頼를 接受하면 所定の 依頼書를 作成하여 相對方 赤十字에 手交한다.

② 双方 赤十字는 依頼書에 記載된 照會事項을 신속히 調査한 後 그 結果를 所定の 報告書를 作成하여 依頼側 赤十字에 手交한다.

③ 双方 赤十字는 相對側으로부터 받은 回報書內容을 지체없이 当初의 依頼人에게 알린다.

둘째, 南北赤十字間에 使用 될 書式의 制定에 있어서는

①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는 依頼書

② 住所와 生死를 알리는 回報書

셋째, 事業機構 設置問題에 있어서는 双方 赤十字는 家族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文件交換業務를 取扱하도록 하기 위하여 「南北赤十字 板門店 事業所를 設置하며 設置 및 運營에 關한 細部的인 事項은 따로 定한다. 넷째, 事業의 開始時期에 對해서는 双方赤十字는 議題 第一項에 合議가 이루어 지는 날로부터 1個月 以內에 住所와 生死를 알리는 文件을 交換하기 始作한다.

등의 4 個項目에 合議할 것을 提議한데 反하여 北赤側은 위에서 提示한 討議 5 個原則下에 議題 第一項의 實踐方案으로

① 南北의 現情況下에서는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들의 露出로 因하여 迫窘을 받을 憂慮가 있음을 考慮하면서 南北은

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南韓側에서 모든 法律的 社会的 障礙를 除去하며, 当事者들과 協調者들이 民主主義的으로 自由롭게 意思를 表示하고 活動할 수 있는 條件과 環境을 造成하도록 한다.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事業을 원만하게 保障하며 南北사이에 互相 信賴와 理解, 民族의 大團結의 분위기를 造成하기 위하여 適當한 數의 赤十字 了解, 解說人員을 各各 相對方 現地에 派遣한다.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 親戚의 範圍는 本人의 호소에 따라 定하며 그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方途는 本人의 民主主義的 要求와 自由로운 意思表示에 따라 定하게 된다.

④ 以上 問題들에 대한 合議事項을 成果的으로 實行 保障하여 南北赤十字共同委員會를 設置하며 必要한 곳에는 赤十字代表部를 各各 設置한다. 等 4 個項의 實踐方案을 提案했다. 또 1973 年 5 月 9 日 서울에서 열렸던 第6次 本會談에서는 다음과 같은 條正提案을 提議하였는 바

첫째, 「法律的 社会的 條件과 環境 改善」의 問題에 對하여

- ① 反共法과 國家保安法을 撤廢하라.
- ② 戰爭과 공포 분위기를 造成하고 民族的 對立과 反目을 고취하는 모든 活動을 禁止하며 그러한 團體들을 없애고 韓國에서 緊張狀態를 緩和하라.
-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 親戚들을 찾기 위하여 南北을 來往하

는 當事者들과 겨레들의 苦痛을 풀기 위한 事業에 나선 協
調者들 및 關係者들에게 言論, 出版, 集會, 通行等 모든 活動의 自
由와 使直를 保障하며 그들의 人身과 携帶品들에 對한 不可侵權을
認定하고

(4) 政黨, 社會團體, 公共機關 및 個人들이 南北으로 흩어진 겨레
들의 苦痛을 덜어주는 事業을 積極 協調할 수 있도록 모든
條件을 保障하라.

둘째, 「赤十字了解, 解說人員의 相對地域의 派遣問題」에 對하여

① 赤十字了解, 解說人員은 各 里(洞)에 1명이 該當되도록 派
遣하며 市, 郡을 單位로 活動한다.

② 赤十字了解, 解說人員들은 흩어진 家族 및 親戚들의 實態를
了解하며 誤解와 不信任을 除去하고 互相 信賴와 民族的 和
睦과 團結의 분위기를 造成하며, 흩어진 겨레들의 苦痛을 덜어주는
人道的 事業을 원만히 保障하기 위한 解說事業을 하며 갈라진 겨레
들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한 效果的인 方途를 詢究한다.

셋째,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方途는 當事者들이 直接 相對側 地域을 自由롭게 다니면서
家族,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것을 基本方途로
하며, 當事者들이 要求하는 間接的 補充的 方途들도 適用할 수 있
다. 등의 內容이다.

以上の 兩側 主張을 比較해 볼때 우리側 主張이 어디까지나 人
道主義와 赤十字精神에 立脚하여 南北으로 흩어진 離散家族들의 苦

痛을 하루빨리 덜어주자는데 力點을 두는데 反하여 北赤側은 「法律的 社会的 條件 및 環境改善」이라는 內政干涉的이고 政治宣傳的인 主張만을 내세워 民族의 念願인 統一意志의 具體的 表現인 南北對話를 膠着狀態에 빠지게 하더니 드디어는 8.28 一方的 對話 中斷宣言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6. 政治的對話로서의 南北調節委員會會議에서 보여준 雙方間의 問題點.

韓半島에 있어서 永統的이고 安定된 平和를 위하여 또 祖國의 自由的이고 平和的인 統一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된 歷史的인 7.4 南北共同聲明은 ① 外勢에 依存하거나 干涉을 받음이 없는 祖國의 自主的統一 ② 武力에 依存하지 않는 平和的인 方法에 依한 統一 ③ 思想과 理念 및 制度의 差異를 超越한 民族的인 大團結을 凶談한다는 基本精神에 立脚하여 現實的으로 南北間에 存在하고 있는 緊張을 緩和하고 關係를 改善하여 서로의 不信과 誤解를 信賴와 理解의 바탕으로 造成하기 위한 다음 5箇項의 具體的인 事項을 1972年 7月 4日 평양과 서울에서 同時 發表하였다. 卽

① 서로 相對方을 中傷 誹謗하지 않으며 大小間 武裝挑發을 하지 않으며, 不意의 軍事的인 衝突을 防止하기 위한 積極的 措置를 取한다.

- ② 南北間에 多方面的인 諸般交流을 實施한다.
- ③ 南北赤十字會談이 早速히 成事되도록 協調한다.
- ④ 突發的 軍事事故를 防止하고 南北間의 諸般問題들을 處理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直通電話를 架設 運營한다.
- ⑤ 合議事項의 實踐과 合議된 原則에 따라 統一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이후락부장과 金英柱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 調節委員會를 構成 運營한다. 等이다.

한편 雙方은 이러한 南北間의 常設的인 協議調整機構인 南北調節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을 위하여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으로서

- ① 合議된 原則에 따라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實現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고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 ② 南北의 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人士間의 廣範한 政治的交流를 實現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고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 ③ 南北間의 經濟, 文化 및 社會的交流와 協力을 實施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고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 ④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軍事的 衝突防止 및 軍事的 敵對상태의 解消問題를 協議 決定하고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 ⑤ 對外活動에서 南北이 共同步調를 取하며 單一民族으로서의 功績을 宣揚하는 問題를 協議 決定하고 그 實踐을 保障하는 機能. 等 5 個項目에 合議했다.

그간에 있었던 3 차례의 南北調節委員會談에서 提示된 雙方間의 主張은 서울側에서

- ① 調節委 幹事會議 및 共同事務局의 運營細則을 早速히 決定하여 調節委의 運營을 正常的인 執道에 올려 놓을 것.
- ② 會議를 보다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한 施設을 具備하기 위하여 板門店에 共同事務局 建設을 共同設置할 것.
- ③ 台議事項을 誠實히 遵守하고 서로의 不信을 解消하고 信賴를 造成하기 위하여 서로 相對方에 對하여 正直할 것.
- ④ 調節委 안에 經濟와 社會 文化 分科委員會를 優先的으로 設置하여 經濟分野에서 南北間에 広範한 交流를 實施함으로써 經濟的으로 共同利益을 追求하는 措置를 實踐에 옮기며 社會 文化 分科委員會에서도 広範한 交流를 實施하여 社會的 共同利益과 便利를 追求하고 民族固有의 文化를 暢達하는 事業들을 實踐에 옮길 것等 4 個項目을 提案한데 反하여 平壤側은

가. 軍事 5 個項의 先決.

- ① 軍備縮少
- ② 兵力減縮
- ③ 軍裝備 導入의 中止
- ④ 美軍撤収
- ⑤ 平和協定締結

나. 政黨 社會團體 等 各階各層의 人士로 構成되는 政治協商會議 開催다. 政治 經濟 軍事 文化 外交等 5 個分科委員會의 一括 設置 等을 提案하여 現實的으로 實踐이 可能한 問題의 解決로부터 漸進的으로 그 對話의 交流의 幅을 넓혀 가려는 우리의 統一接近

方式과는 달리 政治宣伝的인 主張만을 되풀이함으로써 調節委員會談
마저 膠着狀態에 빠졌다가 이것 역시 8.28 一方的인 對話中斷
宣言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7. 南北對話에서 보여준 北韓側의 態度

南北赤十字會談 및 南北調節委員會談 等 이제까지 進行된 南北對
話에서 北韓側은 한결같이 現實性을 無視한 原則問題 先決을 되풀
리하여 主張하고 있음은 우리가 익히 보아온 바이다. 北韓側은
南北赤十字會談에서는 이론바 「法律的 社会的條件 및 環境의 改善」
을 내세워 人道主義의 次元에서 始作된 對話를 政治的 次元으로
이끌어 갈려고 企圖하고 있으며 또 南北調節委員會談에서는 軍事5
個項의 先決과 함께 5個分科委員會의 一括設置를 要求함으로써 體
制間의 善意의 競争을 宣言한 8.15宣言이나 南北間의 緊張緩和
와 民族의 統一念願을 實踐하기 위한 具體的인 方案으로서 提議된
南北赤十字會談 및 ① 外勢依存 및 干涉의 排除에 依한 自主統一
② 武力에 依存하지 않는 平和統一 ③ 思想과 理念과 制度의 差
異를 超越한 民族의 大團結의 圖謀 等을 그 基本精神으로 하는
南北共同聲明의 참뜻을 民族의 念願의 次元에서가 아닌 政治宣伝的
次元에서 利用하려는 意圖를 다시 한번 痛感케 한다.

이러한 南北對話의 膠着狀態를 打開하기 위한 보다 現實的이고
實質的인 次元 높은 統一戰略의 表明인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

에 대해서도 北韓側은 如前히 이론바 平和統一 五大綱領 ① 군사
 여치상태의 解消 ②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의 實施 ③ 大民族會
 議의 召集 ④ 高麗聯邦制 實施 ⑤ 高麗聯邦共和國의 國号下에
 U. N加入 等を 내세워 「國際聯合의 多數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
 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U. N에 加入
 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對 U. N戰略에 正面으
 로 맞서고 있다.

이제까지의 南北對話에서 보여준 北韓側의 主張을 要約하면

- ① 聯邦制 實施
- ② 軍事問題 5個項의 先決
- ③ 平和協定 締結
- ④ 政治協商 또는 大民族會議 召集
- ⑤ 南北調節委안에 政治 經濟 軍事 外交 文化 等 5個分科委員
 會의 一括 設置 및 運營.
- ⑥ U. N 同時加入 反對
- ⑦ 法律的 社會的條件 및 環境의 改善等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가 南北對話에서 基本原理로 삼고 있는 機能主義的 接近
 方式에 따라 現實적으로 解決 可能한 問題부터의 先決을 通하여
 機能的融合에 依한 「波反效果」의 增大를 土臺로 하여 우리의 窮
 極的 目標인 統一을 達成하려는 統一戰略과는 差異가 있다하겠다.

8. 앞으로의 展望

韓半島의 統一問題를 둘러싸고 있는 「民族外在的」條件인 國際情勢는 脫이데오로기의인 平和共存과 現狀維持를 바탕으로 하는 實利追求의 方向으로 흐르고 있고 戰後 冷戰体制의 副産物로 他律的으로 우리 民族에게 안겨진 「民族內在的」條件으로서의 韓半島의 分斷狀態를 自主적이고 平和的인 方法으로克服하기 위하여 民族的 念願인 祖國統一을 達成하려는 具體的方法으로서 試圖된 南北對話마저도 現實을 無視하고 原則論만을 固執하는 北韓側에 依하여 不振狀態를 免치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8.28 一方的인 對話中斷宣言으로 膠着狀態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樂觀論的 統合理論인 收斂論의 原理를 우리가 統一을 위한 接近에 있어서 하나의 假說로서 採択하고 그 具體的인 實現을 위해서 非軍事的 非政治的 方法에 依한 紛爭解決을 試圖하는 機能主義的인 段階的接近方式으로 進行된 南北對話가 지금 一時的으로 膠着狀態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① 南北關係와 漸進的인 改善 (解決이 容易한것부터의 段階的解決)

② 國際的인 呼応을 얻을 수 있는 環境의 造成을 위한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와의 互惠平等原則下의 門戶開放.

等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바탕으로 하는 一連의 統一政策의 持續的인 追求는 民族意志의 具現인 祖國의 自主적이고 平和的인 統一을 가져올 것으로 믿으며 또 반드시 가져와야만 한다고

믿어진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具體적으로 論해 보기로 한다.

우리 民族의 統一이 自主的이며 平和的이어야 한다는것은 民族的 念願인 同時에 하나의 當爲이며 南北對話도 이러한 大前提를 充足시키기 위한 初步的인 試圖였다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金大中 事件을 契機로 하여 南北會談은 膠着狀態 아닌 緊張感마저 감돌고 있다. 南北調節委員會會議도 지난 6月 第三次會議 以後 中斷되고 있다. 여기에 南北對話復活의 展望을 占쳐보기로 하겠다.

먼저 民族外在的條件을 檢討할때 結論적으로 鼓舞的이라고 規定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尙秋 U. N에서의 韓國問題討議가 南北對決을 回避한다는 形式으로 終止符를 찍게 되었다는 点이다.

即 韓國支持國이 提出한 美日決議案도 北韓支持國이 提出한 「알제리아」案도 表決에 부치지 않고 南北間의 直接的인 對話의 成果에 期待한다는 趣旨의 會議가 成立하였다.

韓國問題討議에 있어서 南北의 意見이 正面으로 對立되어 있는 核心은 亦是 「美軍撤収」에 있었다. 이런 重大한 問題가 設使 U. N 第一分科委員會에서 表決이 強行된다고 하여도 同委員會에서 의 「스웨덴」代表의 發言을 빌릴것도 없이 반드시 將來에 禍根을 남기게 될것은 分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實現困難한 決議를 한다는 것은 南北間의 對立感情緩和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을뿐만 아니라 U. N權威의 失墜에 直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角度에서 볼때 이번 韓國問題에 關한 U. N에서의 決定은

南北直接對話의 促進劑의 役割을 하였다고 하겠고, 그것은 또한 機能主義的 表現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韓半島를 둘러싼 이른바 4強의 外交政策이 漸次 機能主義的인 色彩를 짙게 하고 있다는 것만은 事實이며 그렇다고 해서 美·中共의 接近을 蘇聯이 막고 美蘇의 接近을 中共이 가로막고 또 中蘇가 서로 그 宿命的 對立을 持續한다는 3強의 複雜한 關係가 極東情勢를 움직이는 基本的要因을 이루고 있는限 그 可變性마저 否定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民族內在的條件을 考察할때 南北赤十字會談이 지난 7月 12, 13 兩日의 第7次會談 以後 中斷되어 있는데 그것은 韓國側의 事務的이며 具體的인 提案에 對하여 北韓側의 韓國의 反共法, 國家保安法의 廢止 等 政治的 要求를 내세운데 있고 南北調節委員會의 中斷은 韓國이 實現容易한 것부터 着手하기 위하여 經濟, 社會 및 文化의 兩分科委員會만의 設置를 提案한데 對하여 北韓側은 軍備縮少의 兵力減縮, 軍事裝備의 導入中止, 外軍撤收, 平和協定締結 等 高度의 政治的 要求를 提案한데 있다. 이러한 北韓側의 主張이 얼핏보면 形式的이지만 論理的 一貫性을 지니고 있는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는 全혀 現實을 無視한 抽象論이며 戰略的인 平和攻勢라고 斷定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볼때 南北會談의 中斷은 北韓側의 非現實的인 主張에 起因되는바 크다하겠다. 여기서 由來하는 南北對話의 中斷을 克服할 수 있는 길은 韓國의 보다 彈力性있는 對策의 마련이 切實히 要請된다고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서만 北韓側을 會談의 「테이블」

로 끌어들이 수 있을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첫째, 對外的으로는 政治面에 뿐만 아니라 經濟的으로도 이른바 美日一辺倒에서 多辺化를 積極的으로 그러면서도 慎重하게 推進하여야 할것이다.

最近 이에 對한 政府의 能動的인 姿勢는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 特히 韓國經濟의 對日 一辺倒가 加速化 乃至 隷屬化의 危險性마저 排除하지 못하고 있지 않다는데 想倒할때 過渡的現象이겠지만 이것을 政經分離原則의 名目만으로서 正当化하려는 線을 넘어서 보다 慎重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또 近間 韓國의 對外 政策이 對美一辺倒라는 評을 듣고 있지만 不可抗力的인 一面을 否定할 수 없는것이지만 그것은 美國의 保守勢力에 對한 一辺倒는 될지언정 美國外交政策의 主導的位置에 있는 進歩勢力에 接觸되지 못하고 있다는 論議가 없지 않다. 尤우기 韓美兩國은 韓半島의 安保에 對한 狀況判斷에 있어서 적지않은 「이미지. 갭」을 가지고 있는데 있어서라. 換言하면 韓國은 美國의 世界政策의 轉換過程에 있어서 自己의 安保가 犧牲될것을 銳敏하게 느끼고 있다.

둘째, 對內的으로는 社會的安定없이 는 南北對話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없으며 이는 經濟的 安定을 前提로 하여서만 可能하다.

그것은 特히 3次經濟5個年計劃의 推進에서 가져야 할 基本的인 方向을 擘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朴大統領도 71年 9月 2日 新年度 予算 및 追加予算에 對한 施政演說에서 3次5個年計劃은 高度成長에 隨伴하였던 副作用을 是正하고 開發의 惠沢을 農漁民과 低所得層에 까지 미치게 하는 繁榮

의 均衡化計劃이라고 強調한바 있지만 이의 實現없이 社会的인 安定을 求할 수 없으며 「새마을 運動」도 이러한 一面의 表示였다고 생각된다.

이와 關聯하여 72年 2月 韓國研究國際協議會主催 「韓國工業化會議」에서 行한 「예일」大學의 「레니스」教授와 「하와이」大學의 「베린저」教授의 發表는 傾聽할만한 価値가 있다.

「레니스」教授는 韓國과 自由中國의 農業政策을 比較하여 韓國의 農業生産의 不振이 經濟成長을 鈍化시키고 있다고 指摘하였고 「베린저」教授는 韓國의 工業化가 庶民層의 疎外意識을 潑刺케 하여 社会不安의 要因이 되고 있다고 指摘하였다.

끝으로 精神的面에서는 民族의 總和가 무엇보다도 切實한 課題이다.

그것은 抽象的이기는 하지만 民族的 良心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民族成員의 集結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集結을 위하여 어떤 前提條件의 充足을 必要로 하느냐 할때 무엇보다도 分配公正과 不正부패의 除去에 있다 하겠다.

以上에서 南北對話의 推進을 可能케 할 수 있는 우리自體의 外在的 및 內在的 條件에 대하여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提示

하여 보았다.

이러한 條件들이 올바른 方向성을 가질 수 있게 政府의 努力이 集中된다면 南北對話는 雨後晴이라는 氣象予報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要

約

I

오늘날의 現時點에 있어서, 現實的으로 우리가 當面의 課題로서 南北對話를 통한 統一의 길을 設定할 경우, 南北間의 單一政治體制의 實現을 뜻하는 統一概念은 窮極的 民族理念은 될 수 있을지언정 現實的 接近課題로서는 거의 失望的인 것이라 할 것이다. 만약 이와같은 統一概念에 執着하는 限, 그리고 그것을 性急히 期待하는 限, 期待와 希望보다 挫折과 幻滅이 주는 衝擊이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現實的 條件에서 우리가 期待하는 統一을 위한 接近方法은 現實的으로 可能하며, 또 그것이 窮極的 民族理念 즉 政治的 統合(Political Integration)에 到達할 수 있는 過程으로서의 段階的 概念이 設定되어야 하며, 이 段階的 概念으로서 非政治的, 「脱이데오로지」的 分野에 있어서의 南北間의 接觸·交流·協同體制의 漸進的 擴大를 志向하는 民族的 融合(National Association)의 概念을 確認하는데 있다. 이와같은 段階的 過渡的 概念으로서의 融合過程이 進展되는 경우 理念的 統合의 窮極的 目標에 到達할 수 있는 展望이 서게 된다.

오늘날 世界的 次元에서의 理念的 統合(Ideological Integration)을 展望하는 경우 樂觀的 見解로서의 이른바 收斂論(Convergence Theory)과 悲觀的 見解로서의 離散論(Divergence Theory)이 있는바, 우리가 極端的으로 離散論을 固守하는 限, 南北對話에 精力消費를 해야 할 理由가 없고, 또한 收斂論에만 安住

하는 限, 南北對話의 難關을 克服하는데 있어서 警戒해야 할 思慮 없는 速斷에 빠질 念慮가 있고, 予期치 않는 挑戰에 當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離散論의 余地를 恆常 覺悟하면서 收斂論 쪽으로 기울이는 折衷的 立場이 重要的 前提가 될 것이다.

만약 이와같은 概念에 대한 確認과 그에 立脚한 分析視角이 前提되지 않는 限, 그동안의 南北對話의 過程을 正確히 把握分析치 못할 것이며, 더욱 重要的 것은 앞으로 이 對話를 効率的으로 誘導해야 할 우리의 戰略이 適切히 樹立되지 못할 것이다.

II

그동안의 南北對話를 통한 事態發展의 特徵的 樣相과 그 性格을 分析 整理해 보면, 于先 우리의 基本理念과 基本戰略은 政府가 闡明한 바 처럼 한마디로 「平和的 方法에 의한 自主的 民族統一의 努力」이라 할 것이다. 平和的 方法에 의한 自主的 民族統一의 努力이란 南北對話를 推進하는 우리의 基本理念이자 基本戰略인 것이다. 즉 民族統一은 우리의 基本理念이며, 이를 위한 平和的 自主的 努力은 그 基本戰略인 것이다. 平和的 自主的 努力은 具體的으로 急變하는 國際情勢에 대한 能動的 対処라는 客觀的 周辺環境에 대한 効率的 対応이라는 側面과, 南北間 相互間의 漸進的 融合過程의 摸索이란 自体努力의 側面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國際情勢의 特徵的 變化는 東西間의 平和的 共存을 위해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는 새로운 勢力均衡의 模色이라 要約할 것이

다. 즉 이러한 國際情勢의 特徵的 動向이 現狀維持 (Status quo) 를 基調로 하는데 있는 바, 南北對話를 통한 自主的 統一의 努力이 現狀打破가 前提가 되는 하나의 志向性으로서 形式論理的으로 보면, 現狀打破가 前提가 되는 自主的 民族統一은 現狀維持가 前提가 되는 國際潮流에 逆行하는 二律背反的인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分명한 것은 民族統一은 우리의 窮極的 當爲的 目的이며 基本理念인데 反해 國際情勢에 対応함은 이러한 目的達成을 위한 手段에 不適當한 것이지 그 自体가 目的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國際的 現狀維持란 平和를 위한 緊張緩和의 手段이지 現狀維持 그 自体가 目的이 될 수 없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우리는 國際的 趨勢에 있어서 平和라고 하는 追求와 우리의 志向性에 있어서 自主的 民族統一이라는 目的이 兩立할 수 있는 條件은 平和的 方法 또는 戰略이라는 概念을 確認하는데 있다.

또한 平和的 自主的 戰略이라는 自体努力은 窮極的 統合을 위한 段階的 概念으로서의 機能的 融合 (Functional Association) 의 模索이다. 이것을 위한 現實的 努力이 南北對話를 통한 民族的 融合의 諸條件을 積極的으로 造成해 가는 作業過程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機能的 融合에 대한 信念과 期待는, 이러한 自体努力의 具體的 成果로서 얻은 特定分野의 成功的 經驗은 그 波及效果 (Spillover Effect) 로 해서 보다 高次的 問題解決의 基本「모델」을 提供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데서 出發한다.

그동안 우리의 「이니셔티브」에 의한對話의推進은 이러한 基本的 理念과 基本戰略에 立脚한 現實的이며 實質的인 機能的 融合의 模索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南北對話를 통해 나타난 北韓의 統一戰略은 한마디로 政治的 軍事的 問題의 先決處理를 執拗하게 固執하는 데서 그들의 戰略上의 特徵的 性格을 把握할 수 있다.

그들의 問題提起는 어느것이나 서로 表裏一体的 相互關聯性과 首尾一貫한 原則的 志向性을 한결같이 露呈하는 것으로, 政治的 軍事的 上位問題의 合意가 없는 限, 文化的 社会的 經濟的 其他的 下位問題의 解決進歩는 期할 수 없다는 下向的 形式論理를 驅使하며, 現實的 實際的 實現可能한 諸條件의 造成을 위한 予備作業上의 必要한 諸條件을 排除하고, 窮極的으로 到達할 理念的 目的만을 強調하여, 그러한 形式論理의 正當性을 合理化하려는 至極히 獨善的 性向을 露呈하게 되었다.

이러한 北韓의 下向的 問題解決方式과 우리의 上向的 問題解決方式이 特徵的으로 나타난 것이 1973年 3月 14日부터 平壤에서 開催된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談에서 었다. 우리는 于先 爭點이 적은 經濟·社會·文化分野의 交流를 통해 相互信賴와 和解의 발판을 넓혀가자는 機能的 融合의 追求를 提示한데 反해 北韓은 南北間의 軍縮·美軍의 撤収 및 平和協定締結등 軍事的 政治的 問題의 優先解決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下向的 問題解決方式을 固執하므로써, 相互의 對話進展은 事實上 이때부터 膠着狀態에 빠졌던 것이다.

北韓의 이러한 獨善的 形式論理의 驅使는 7.4 共同声明의 解決과 關聯하고 있다는데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7.4 共同声明을 飛躍적으로 解釈하거나 이를 歪曲 擴大解釋함으로써 그들의 主張을 合理化하는 口實根拠로 삼고 있는데 問題性이 있다.

7.4 共同声明을 두고 우리가 考慮해야 할것은, 어떠한 規定事項의 表現에 있어서도 그것을 承認하고 解釋하는 主觀的 多樣性を 完全히 排除할 수 있을 程度로 完璧한 明示를 期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는 事實이다. 7.4 共同声明을 解釋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自己合理化를 위한 主觀的 便宜의 解釋이 나올 수 있는 余地가 充分히 있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즉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을 받음이 없이」라는 明示를 北韓側은 그들의 戰略的 考慮에서 그들이 要求한 軍事問題 5個項과 關聯하여 이를 便宜解釋하여 그들 主張의 合理化를 위한 口實根拠로 삼고 있다. 또한 「相對方을 反對하는 武力行使에 依拠해서는 안되며」하는 明示를 飛躍解釋하여 軍事問題 5個項과 關聯하여 軍縮問題와 平和協定 締結등 그들提議의 口實根拠로 하고, 「思想과 理念, 制度를 超越하여 于先 民族의 大團結을 圖謀해야 한다」는 明示를 擴大解釋하여 社會 各界各層의 人士들과 政黨·社會團體의 代表들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를 構成해야 하며 統一을 위한 暫定措置로 南北聯邦制를 提議하고 있다.

우리는 特定한 用語가 戰略적으로 解釋되거나 「이 데올로지」의 色彩를 띠어 多様な 含蓄性을 露呈하는 경우를 흔히 發見한다.

北韓의 解脫은 그 典型的 例로서 볼 것이다.

III

우리가 分明히 予見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北韓社會의 極限의 權威主義, 類例없는 閉鎖的 硬化性이 더 할수록 前近代的 要素가 累積되어 國際的 趨勢에서 落後性을 免치 못 할 것이며, 反對로 北韓社會가 開放化할수록 그 外制的 要因으로 해서 스스로의 体制的 變化의 「템포」를 加速시킬 것이라는 點이다. 오늘날 그들은 그 硬化된 閉鎖性의 限界를 認識하고 外延的 接觸을 서두르고 있다. 70年代에 접어들자 눈부시게 展開된 그들의 國際外交關係의 擴大努力은, 그것이 그대로 北韓社會의 開放性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外延的 接觸이 주는 外制要因을 決코 排除할 수 없을 것이다.

北韓社會를 念頭에 둔 事態의 歷史的 發展을 이와같이 觀望할 경우 우리는 統合理論으로서의 收斂論的 見解에 보다 接近하고 있음을 發見한다. 歷史發展過程에 있어서 樂觀的 統合理論으로서의 收斂論에 接近하는 限, 그 積極的 戰略理論으로서의 機能主義的 接近法 (Functional Approach) 이 可能하다는 前提가 成立한다.

機能主義的 接近法에 의해 南北對話의 過程을 보는 경우, 政治的 統合이란 窮極的 目標을 위해서는 機能主義的 側面에서의 길고 긴 統合의 旅程이 必要할 것이다.

오늘날 EC의 成功은 우리가 模索하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機能的 融合을 위한 鼓舞的 資料를 提供해주며, 특히 Blant 의 Optpolitik 는 우리에게 戰略上의 重要한 參考가 된다. 즉 Blant 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東西獨의 機能的 融合의 試圖는 于先 相對인 東獨보다 東獨과 隣接한 諸東歐共產國家와의 和解潮流를 먼저 이룩하고, 이러한 周邊潮流에 東獨으로 하여금 同調하지 않을 수 없게끔 外制的 諸條件을 먼저 造成했다는 點을 參考해야 할것이다.

東西獨關係와 우리의 南北關係를 同一한 基準에서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Blant 의 接近方法은 우리에게 큰 示唆를 주는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至極히 閉鎖的인 北韓으로 하여금 機能的 融合의 길에 同調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北韓과의 忍耐性있는 對話를 계속 試圖하는 한편, 北韓의 背從國家인 中共, 蘇와 北韓과 關係가 密接한 第3國과의 和解의 潮流를 積極模索하여 北韓으로 하여금 우리가 企圖하는 方向으로 誘導하는 戰略的 考慮가 매우 重要하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